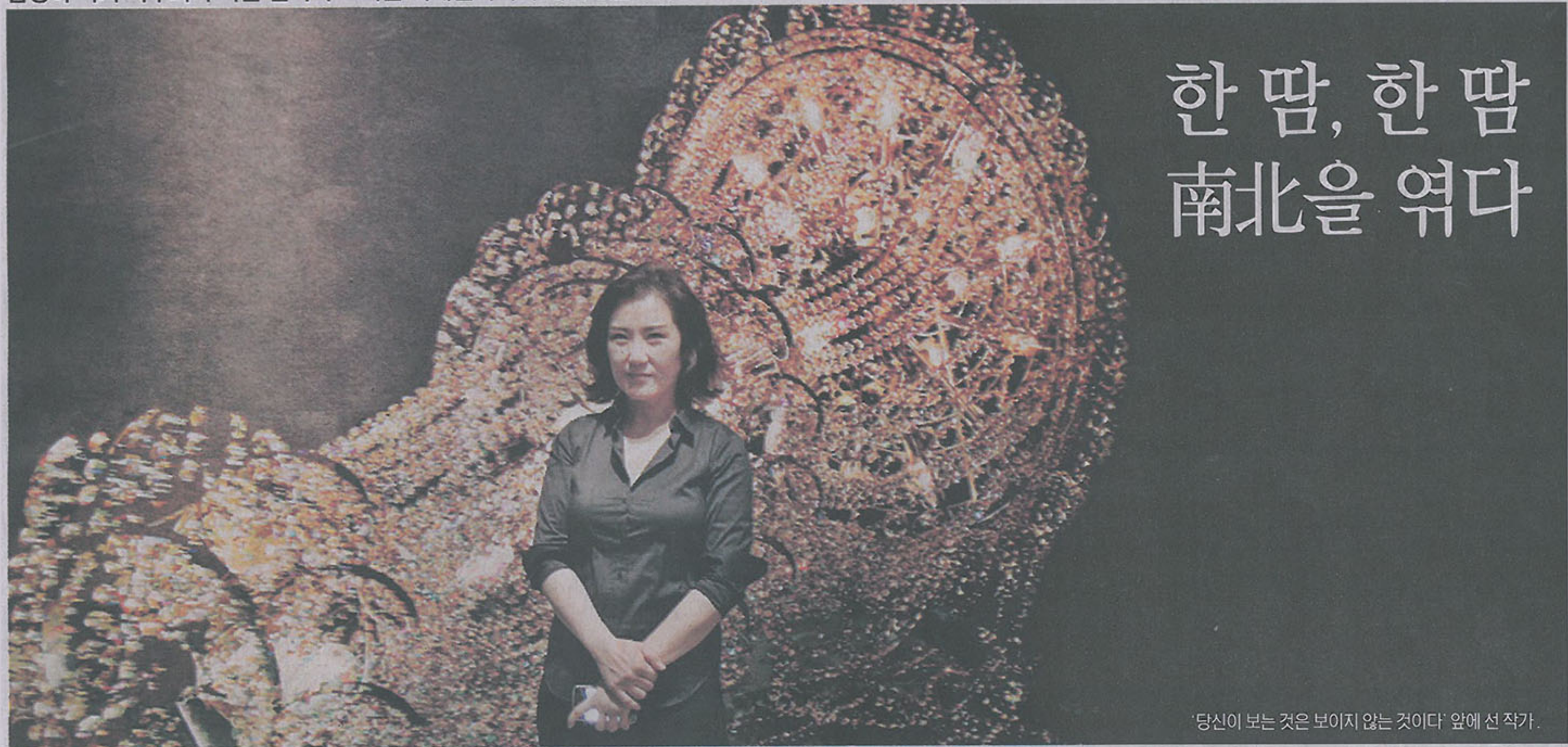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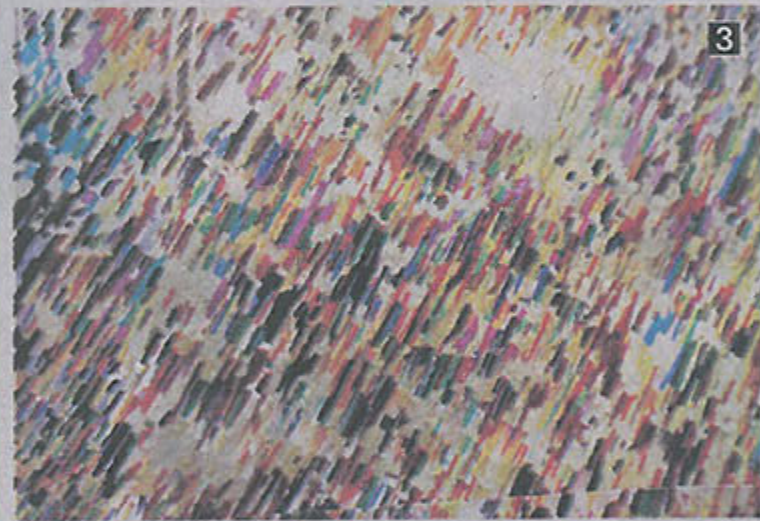


함경아 작가 자수회화 작품 전시회... 서울 국제갤러리서 새달 5일까지



# 한 땀, 한 땀 南北을 엮다

'당신이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앞에 선 작가.



**1** '돈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 **2** '당신도 외롭나요?' **3** '당신이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의 디테일. 보이지 않지만 북한의 자수 공예가들은 정교하고 성실한 노동의 흔적을 남겼다. **4** '체스판이 동틀 녘까지 그들을 지체시킨다. 두 색이 중오하는 냉혹한 영역에' 국제갤러리 제공



'헝헝색색' 손자수에 감탄이 절로... 디지털 도안 보내 전달받는데 1년 걸리기도... 북한 공예가들이 수놓으며 '소통의 의미' 더해

현란한 이미지와 화려한 색상이 눈길을 끄는 추상적인 화면, 어렵듯이 짧은 문구들이 드러나 보인다. '당신도 외롭나요?', '처음에는 암흑이에요', '그대여, 나와 같다면 '돈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팝아트 작품이겠거니 하고 가까이 다가서면 예상을 뒤엎는 디테일이 눈앞에 펼쳐진다. 100호를 넘는 커다란 화면을 갖가지 색깔의 비단실로 한 땀 한 땀 떠서 빼곡하게 메웠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을 자수는 북한의 자수 공예가들이 했다는 얘기에 또 한번 놀란다.

다양한 방식으로 부조리한 세상과 역사를 패러디하며 거침없는 메시지를 던져 온 작가 함경아(48)가 서울 서간동 국제갤러리에서 북한의 자수 공예가들이 작가의 이미지를 받아 손자수로 완성한 대규모의 신작 자수회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스케일이 큰 작품들은 제작하는 과정 자체가 예술이다. 작가는 의미 있는 이미지들을 찾아내 디지털 작업으로 그림을 완성한 뒤 확대한다. 픽셀화된 이미지를 천에 프린트해서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면 자수 공예가들은 픽셀 하나하나

에 한 땀 한 땀 수를 놓는다. 갤러리에서 만난 작가는 "분단된 남과 북의 물리적 장벽,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예술가인 내가 어떤 방식으로 뛰어넘을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며 "자수를 놓는 작업 과정에서 북의 공예가들이 남쪽에서 제가 보낸 도안상의 이미지와 색채, 텍스트를 지속적으로 접하도록 하면서 소통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완성된 결과물은 같은 경로를 통해 남측의 작가에게 전달된다. 간혹 불가항력적 요소들로 인해 압류되거나 행방불명이 되기도 하고 작품을 수주하고 전달받기까지 1년 가까이 걸린다. 국제갤러리의 K2 공간에 전시되는 '위장술 속 SMS 시리즈'와 K3공간의 거대한 상들리에 이미지를 담은 '당신이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다섯 개의 도시를 위한 상들리에' 시리즈는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달리 말하자면 함경아의 자수회화는 남과 북, 그리고 중간자의 공동작품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작품 앞에 서면 땀과 노력을 쏟은 '누군가'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몇 명이 어떤 환경에서 작업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작품 설명은 길

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 손자수, 커튼 위에 비단실, 중간자, 분노, 검열, 3700시간, 4명'.

작가는 "클릭 한 번 하면 수많은 정보를 받아보는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방식의 노동집약적인 자수라는 매체를 대안적 소통방식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수작품은 이미지로 재구성된 작가의 예술적 기획이 보이지 않는 타자의 노동행위를 통해 구체적인 작업으로 구현된 소통의 매개체인 셈이다.

그의 자수프로젝트는 집 앞에서 북측이 날려보낸 '빠라(전단)'를 발견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한다. 작가는 허구적 프로파간다를 상징하는 빠라를 대면하면서 북쪽에 있는 불특정한 대상들에게 전달되는 예술적 메시지를 기획하게 된다. 2008년 첫 메시지로 병풍이미지를 보냈다. 포기하고 있을 무렵 기적처럼 답이 돌아왔다. 2009년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폭발 당시 발생한 버섯구름을 손자수로 제작한 작품들을 제 6회 아시아-태평양 트리엔날레에 선보였다. 이후 그는 전쟁에 관한 역사적이고 동시대적인 이미지들을 콜라주로 제작한 뒤 북한에 전달

해 손자수로 작품을 완성했다.

이번 전시엔 선보인 추상적인 이미지의 '위장술 속 SMS 시리즈'는 해체된 형상과 군사적 위장술을 연상시키는 은유적 단어, 대중가요 가사들이 혼합된 화려한 색채의 작품들로 구성된다. 작품 속의 이미지들은 은연 중에 지배권력에 대한 모종의 비평적 암시들을 내포하고 있다. '당신이 보는 것은...'에서 거대한 상들리에에는 바람에 흔들리거나 바닥에 추락한 상태로 표현돼 있다. 작가는 "무너진 상들리에, 희미한 불빛을 통해 거대 권력, 이념이나 담론의 불완전성, 추락이나 붕괴를 은유하고자 했다."며 "시각적으로는 화려한 상들리에지만 이 이미지의 이면에는 한 땀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바친 북한의 자수 공예가들과 분단의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고통이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인전에 붙여진 제목은 '유령의 발자국들(Phantom Footsteps)'이다. 보이지 않는 유령이 남긴 발자국처럼 실체가 아닌 것들이 실체를 구현해내는 역설적인 현상을 함축한다. 전시는 7월 5일까지.